

kiri Weekly

2012.3.19 제174호

이슈

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

금융보험 해설

생명보험의 이해 3: 순보험료, 영업보험료, 평준보험료

국내금융 뉴스

금감원, 2011년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발표

해외금융 뉴스

북미 _ 미국경제, 낙관론 확산

유럽 _ 유럽중앙은행 출구전략 시사

_ 영란은행, 보험회사에 대한 그림자 금융위기 경고

_ 그리스 민간채권단 국채교환 결과 및 시사점

일본 _ 공무원·직장인 2015년 연금 일원화 법률안 4월 제출

중국 _ 2월 중국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 기록

금융시장 주요지표

kiri 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8층 보험연구원 (문의: 김세환 부장 / 02-3775-9051)



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

안철경 금융정책실장

요약

■ 공제로 운영되던 농협보험이 「보험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됨.

- 첫째,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에 대한 기본 틀이 구축되어 향후 타 공제의 감독일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, 대형사 위주의 과점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타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보험회사의 금융그룹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.
- 둘째, 두 개사 보험조직 및 전속설계사 채널의 구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지만, 직원 및 설계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.
- 셋째, 농협은행(금융점포)의 25% 룰 적용은 결과적으로 기존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으나,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특례로 방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.

■ 농협보험의 「보험업법」 적용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내에서 「보험업법」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(제12조) 「보험업법」의 전면 적용을 규정(제134조의5)하여 시행되었음.

-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분리 각각 설립하고, 2009년 10월 28일 판매 중인 공제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허가·의제하며,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조건부 허가 의제(제134의5, 부칙 제15조)임.
 - 단, 퇴직연금은 5년간 판매제한하며, 농기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상품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함.
-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의제하여 방카를 즉시적용, 조합은 5년간 적용 유예(자산 2조 원 이상인 조합의 25% 룰은 단계별 제한)하며, 2009년 10월 28일 이전 공제모집자격자에게 보험모집자격을 부여함.
- 기존 공제계약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 및 농협손해가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봄.

■ 유사보험(공제) 형태로 영위해 왔던 농협의 공제사업이 2012년 3월 2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농협금융지주회사 내에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시장에 진입함.

- 생·손보를 포함하여 농협공제의 규모(2011년 말 기준)는 총자산 36.7조 원, 수입보험료 10.3조 원이며, 규모면에서 농협생보는 대형 3사에 이어 4위, 농협손보는 9위에 해당됨.

〈표 1〉 농협생명의 자산 및 보험료 비교

(단위: 조 원)

구분	농협생명	삼성생명	대한생명	교보생명	ING생명
총자산	35.3	146.4	63.7	57.9	20.2
수입보험료	9.3	21.6	11.1	10.8	4.2

주: 1) 농협 손보 총자산 1.4조 원, 수입보험료 1조 원임.

2) 농협생명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, 민영보험은 2011년 3월 말 기준임.

- 농협보험의 진입으로 신규창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민영보험시장 규모는 증가함.
 - FY2011년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88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농협생보공제 보험료 9.3조 원이 추가되면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약 10%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.

〈표 2〉 생보시장 전체와 농협생보의 비교

(단위: 조 원, %)

구분	생보전체(a)	농협생보(b)	비중(b/a)
총자산	436.3	35.3	8.1
수입보험료	88.1	9.3	10.6

주: 생보 총자산은 2011년 10월 말, 수입보험료는 FY2011 추정, 농협 통계는 2011년 12월 말 기준(중앙일보, 2012. 3. 2)임.

■ 농협보험의 출범은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 체제 구축, 보험회사 간 경쟁 강화 및 금융그룹화 정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-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로 공정경쟁의 기초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, 국내 타 공제(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수협 등)의 보험업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제기관 감독일원화에 기여함.
 - 아울러 FTA 등 시장개방 시 쟁점이 되어 왔던 국내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함.
- 농협 생보는 수입보험료 기준 4위의 대형 생보회사로서, 농협손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는 중견 손보 회사로서 대형사 위주의 과점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
 - 농협 생보 수입보험료를 9.3조 원으로 가정 시 대형3사 점유율(FY'09) 54.1% → 48.4% (△5.7%)임.
- 농협금융지주의 진출은 KB금융지주 등 기존 소형 생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과 본격적인 금융그룹 간 경쟁 촉진을 유발할 것으로 보임.
 - 농협금융지주 산하 생보회사가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와는 달리 대형사로서 시장 내 역할을 자리매김할 경우 타 금융그룹 또는 대형보험회사에도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M&A 가능성이 예상됨.

■ 공제 형태인 조직을 2개의 민영보험회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총원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.

- 공제조직이 민영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언더라이팅 및 심사, 고객 및 영업관리, 리스크 관리, 손해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, 아울러 대면채널 구축을 위한 전속설계사 인력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됨.
 -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입 및 경력채용이 이루어져 현재 농협생보 총직원 수가 600명 수준이나 유사한 규모의 국내 대형 생보사의 임직원은 4,000명 수준(교보 4,398명, 대한 4,187명)임.

■ **방카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던 농협공제가 향후 보험시장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속설계사의 육성이 불가피할 것이며, 이에 따라 설계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전개가 예상됨.**

- 농협보험이 전속설계사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하에서는 사실상 수월하지 않음.
- 경쟁 위치에 있는 대형보험사의 설계사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1천여 명에 불과한 설계사의 신규 확보가 향후 지속성장의 관건임.
 - 농협보험은 방카시장에서의 불가피한 시장 감소를 설계사 시장의 증가로 만회해야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 내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, 적어도 대형 지역조합의 방카 규제 혜택이 소멸되는 5년까지는 설계사 시장에서 연착륙이 필요한 실정임.
- 만일 조기에 전속설계사를 확보하기 위해 타 회사의 설계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경우 모집시장 질서가 혼란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, 아울러 설계사 스카우트 시 과도한 사업비 지출 증가가 우려가 있음.

〈표 3〉 기존 보험사와 농협생보의 비교

(단위: 명, 개)

구분	설계사 수	점포 수
삼성	38,251	2,570
대한	24,279	1,050
교보	22,235	517
농협	1,182	4,473

주: 1) 농협점포 수는 지역단위조합 수임. 농협은행 금융점포 1,172개를 포함하면 5,645개임.

2) 농협은 2011년 말 기준임(보험사 설계사 수 2011년 10월 말 기준).

■ **농협은행(금융점포)의 25%를 적용으로 기존 보험사의 경우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,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로 기존 방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.**

- 농협공제가 독점하고 있던 농협금융점포의 방카슈랑스에 대해 「보험업법」상의 25%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나머지 75%의 시장(약 1조 7천억 원)을 두고 경쟁함.
 - 결국 전속설계사 채널보다는 방카 및 신채널의 활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 및 외자계 보험사들에게 신규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.
- 반면, 농협공제 매출의 대부분(73%)을 차지하였던 1,167개(총 4,473개 금융점포)의 단위조합에 대해 공제상담사의 모집행위 허용, 방카슈랑스 25%를 5년간 유예 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함.

- 중앙회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약 8만 명의 공제상담사가 별도의 자격 없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으나¹⁾, 「보험업법」상 모집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음.

■ 소비자 측면에서는 농협의 전국적 금융점포망(1,172개)을 통해 기존의 농협공제상품에 한정하고 않고 전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됨.

● 반면, 공제상품과 같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보험상품을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. **kiri**

1) 「보험업법」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협보험 설립 후 2년 동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(부칙 § 15④)함.